

| 풍경으로의 여행 |

넓고 허름한 공간의 무한변신, 부산으로 떠나는 추억여행

글·사진 정철훈 여행작가

서울예전 사진과를 졸업했다.

사진이 좋아 여행을 시작했고 여행이 좋아 여행작가로 살아간다.

- 2017~2018년 한국관광공사 <추천 가볼 만한 곳> 선정위원
- 2013~2014년 코리아 실크로드 탐험대 역사기록팀(오아시스로, 해양로 탐험)
- 2014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
- 2005년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선정 <2030 청년작가 10인>



넓고 허름한 공간들이 새롭게 태어났다. 예술이라는 멋진 이름을 붙이고서다. 초량이바구길과 갯강이예술 마을, F1963은 부산을 대표하는 업사이클링 여행지. 예쁜 벽화와 멋진 예술 작품, 그리고 그곳에 켜켜이 쌓인 시간은 처음부터 하나인 듯 자연스럽게 어우러진다. 숨 가쁘게 달려온 힘겨운 일상을 뒤로하고, 여유와 낭만 그리고 추억을 만끽할 수 있는 곳. 우리는 지금 부산으로 간다.

이야기 따라 내딛는 걸음, 초량이바구길

초량이바구길은 부산역 광장 맞은편, 부산 차이나타운에서 시작한다. ‘이바구’는 ‘이야기’의 부산 사투리. 일제강점기와 해방, 그리고 6·25전쟁과 근대화를 거치며 쌓이고 다져진 수많은 이야기가 이 길 위에 화석처럼 남아 있다.

초량이바구길에서 가장 먼저 여행자를 반기는 건 부산 최초의 근대식 개인종합병원인 ‘부산 구 백제병원(등록문화재 제647호)’이다. 1922년에 지어졌으니 10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



초량아바구길 전망대에서 바라본 부산항



초량아바구길 명물인 168계단과 모노레일



168계단에 조성한 조형물



옛 건물을 게스트하우스로 활용한 이바구충전소



이바구 공작소에서는 초량동과 이바구길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옛 추억으로 떠올리게 하는 그 시절 교과서



초량교회는 한강이남 최초의 교회다.

지만 붉은 벽돌을 차곡차곡 쌓아 5층까지 올린 모습은 여전히 다부지다. 현재는 ‘브라운핸즈 백제’ 카페가 사용하고 있다. 주민들 사이에서 ‘명태고방’이라고 불리던 남선창고 터는 이곳에서 80m 남짓 떨어진 곳에 있다.

한강이남 최초의 교회인 초량교회를 지나 초량동 휴게쉼터에 닿으면 초량이바구길의 명물, 168계단이 나온다. 168계단은 산복도로에서 부산항까지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길이다. 이 계단을 따라 김민부전망대와 장난감박물관, 브런치 카페 우리동네 168, 이바구놀이터 등이 모여 있다. 168계단 끝, 전망대까지는 무료로 운행하는 모노레일을 타고 오를 수 있다. 모노레일은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한다.

초량이바구길의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이바구공작소는 168계단이 끝나는 영초윗길에서 게스트하우스 이바구충전소를 끼고 경사로를 조금 오르면 만날 수 있다. 이바구공작소 1층 추억상회에는 검정교복과 그 시절 교과서처럼 옛 시절을 더듬어 볼 수 있는 재미난 볼거리도 많다. 이바구공작소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월요일은 휴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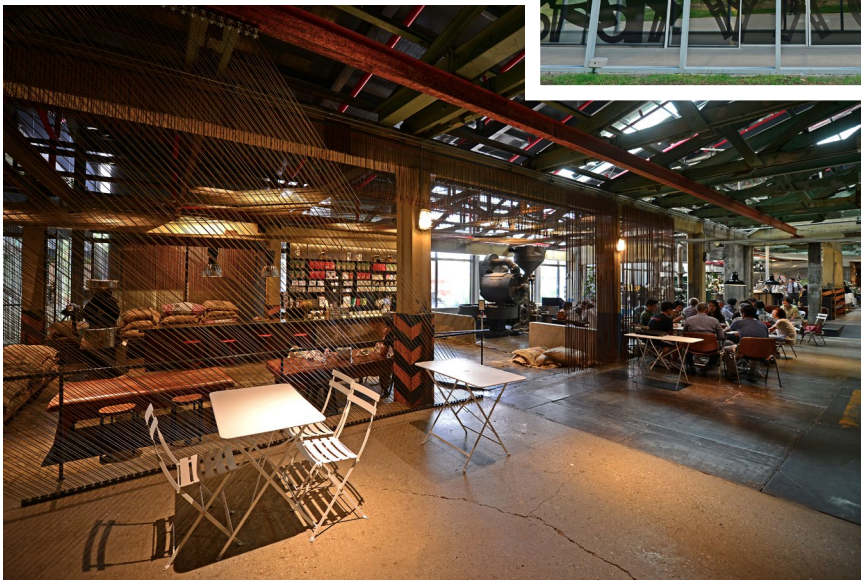
초량이바구길에서 만난 벽화

와이어 공장의 무한 변신, F1963

F1963은 특수선재를 생산하는 고려제강이 설립한 복합문화공간이다. F는 'Factory', 1963은 고려제강이 수영구 망미동에 처음 공장을 설립한 해를 의미한다. 1963년부터 2008년까지 45년 동안 와이어로프를 생산하던 공장은 2016년 9월 부산 비엔날레를 계기로 자연과 예술이 공존하고 사람과 문화가 중심이 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다시 태어났다.

F1963은 복합문화공간답게 문화시설과 휴게공간을 두루 갖췄다. 이동식 무대와 의자, 음향 반사 구조물이 설치된 석천홀과 중정에 마련한 F1963 스퀘어가 문화시설이라면, 국내 최대 규모의 중고서점 예스24와 커피 전문점 테라로사, 손막걸리 전문점 복순도가, 체코 전통 수제 맥주 펍 Praha993은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기에 좋은 휴게공간이다. 본관 앞, 소리길이

와이어를 생산하던 공장이 복합문화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F1963에 입점해 있는 테라로사 매장



국내 최대 규모로 조성된 중교 서점 예스24



고려제강 기념관은 2014년 부산다운 건축상 대상을 수상했다.

라 이름 붙인 대숲도 F1963의 명소. 짧은 숲길을 거닐며 바람에 서걱대는 대나무를 바라보면 강하지만 유연한 와이어와 대나무가 많이 닮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공장 폐수처리장을 아름다운 생태정원으로 꾸민 수련가든도 F1963에서 놓칠 수 없는 곳 가운데 하나다.

F1963을 돌아본 뒤에는 고려제강 기념관도 놓치지 말자. 홍보관과 와이어 뮤지엄으로 구성된 이곳에서는 70여 년간 와이어를 생산해온 고려제강의 역사와 다양한 와이어 제품은 물론 와이어 산업의 시작과 제작공정, 산업별 쓰임새 등을 두루 살필 수 있다. 노출 콘크리트와 와이어를 이용해 꾸민 고려제강 기념관은 2014년 부산다운 건축상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고려제강기념관 견학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일 3회(10:00, 14:00, 16:00) 진행되며, 1회 견학 인원은 15명 내외로 제한한다. 견학시간은 1시간 30분 정도. 인터넷을 통한 사전 예약은 필수다.



고려제강 기념관 2층에 마련된 와이어뮤지엄



와이어를 이용해 와이어 제작 과정을 설명하는 전시물



헨드릭 바이키르히의 작품, '우리 모두의 어머니'



강강이예술마을의 정체성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수리가 있는 강강이마을'



이광기 작가의 작품 '그때 왜 그랬어요'는 해질녘 자갈치 시장에서 더욱 잘 보인다.



강강이 아지매들을 작업선까지 실어 나르는 통선들

근대 수리조선 1번지, 영도 대평동 강강이예술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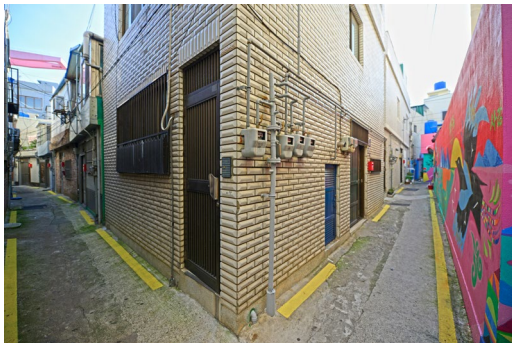
부산시 영도구 대평동(대평로1:2가)은 우리나라 최초로 근대식 조선소가 세워진 곳이다. 배 표면에 슢 녹이나 조개 같은 이물질을 털어내기 위한 망치질 소리 때문에 ‘강강이마을’이라고도 불렸다. 억척스러움의 대명사인 ‘강강이 아지매’는 고된 강강이질에 나선 대평동 중년 여인들의 근면과 끈기를 상징하는 말이 됐다. 대평동에 ‘예술’이라는 예쁜 이름이 붙은 건 지난 2016년 시작된 문화예술형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통해서다. 마을 이름은 대평동 주민들의 근면함을 상징하는 ‘강강이’에 ‘예술’을 더해 ‘강강이예술마을’로 지었다.

강강이 생활문화센터는 강강이예술마을의 시작점이자 중심이다. 마을 주민들이 운영하는 마을다방과 강강이마을박물관이 이곳에 있다. 센터 1층에 위치한 마을다방은 다방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세련된 인테리어가 돋보인다. 마을다방과 강강이마을박물관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연중 무휴로 운영한다.

강강이 생활문화센터에서 마을 지도 한 장 집어 들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마을 투어에 나설 차례다. 코스는 강강이 생활문화센터 옆 셋길(대평주차장 방면)을 통해 대평로로 나와 영도도선장이 있는 북대평로를 따라 대동대교맨션까지 다녀오는 게 일반적. 강강이 생활문화



강강이마을박물관에 마련된 상설전시장



좁은 골목길 따라 예쁜 벽화들을 만날 수 있다.

40년 역사를 자랑하는 강강이에술마을의 명물, 양다방



센터로 다시 돌아오는 1km가 채 되지 않는 이 길 위에 강강이 마을의 정체성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수리가 있는 강강이마을'과 강강이마을의 랜드마크인 헨드릭 바이키르히의 '우리 모두의 어머니'를 포함한 30여 개의 공공예술작품이 숨바꼭질 하듯 숨어있다. 옛 다나카 조선소 자리와 40여 년 동안 선원과 조선소 노동자들의 쉼터가 되어준 양다방에서 마시는 달달한 추억의 커피 맛도 강강이에술마을에서 놓칠 수 없는 볼거리, 즐길거리다.

곰장어, 어묵 등 부산의 맛

부산하면 떠오르는 대표적 먹거리는 단연 어묵이다. 삼진어묵은 어묵의 고장 부산에서도 가장 오래된 어묵 브랜드다. 1953년 창립 이래 3대에 걸쳐 65년간 한결 같은 맛을 지켜오고 있다. 베이커리식으로 꾸민 삼진어묵 영도본점에서는 쫄깃한 식감이 일품인 전통 부산어묵에서부터 호두, 아몬드, 호박씨를 함께 넣고 찢고 굵어묵까지 다양한 어묵을 맛볼 수 있다. 삼진어묵 영도본점 2층에는 어묵에 대한 정보가 가득한 역사관과 어묵만들기 체험을 진행하는 체험관도 마련돼 있다.

동래파전은 밀가루로 반죽한 여느 파전과 달리 멸치 국물에 쌀가루를 넣어 차지고 쫄득한 것이 특징이다. 재료를 반죽에 미리 섞지 않는 것도 다르다. 기름 두른 번철에 쪽파를 펼쳐놓고 쌀가루 반죽을 부어 파 사이사이에 스며들게 한 뒤 양념한 쇠고기와 조갯살, 굴, 새우 등 해산물을 푸짐하게 올려 부친다. 마지막에 달걀을 깨뜨려 넣고, 해물 맛을 살리기 위해 초고추장에 찍어 먹는다. 70년 전통을 자랑하는 동래할



곰장어

매과전은 부산시가 지정한 전통향토음
식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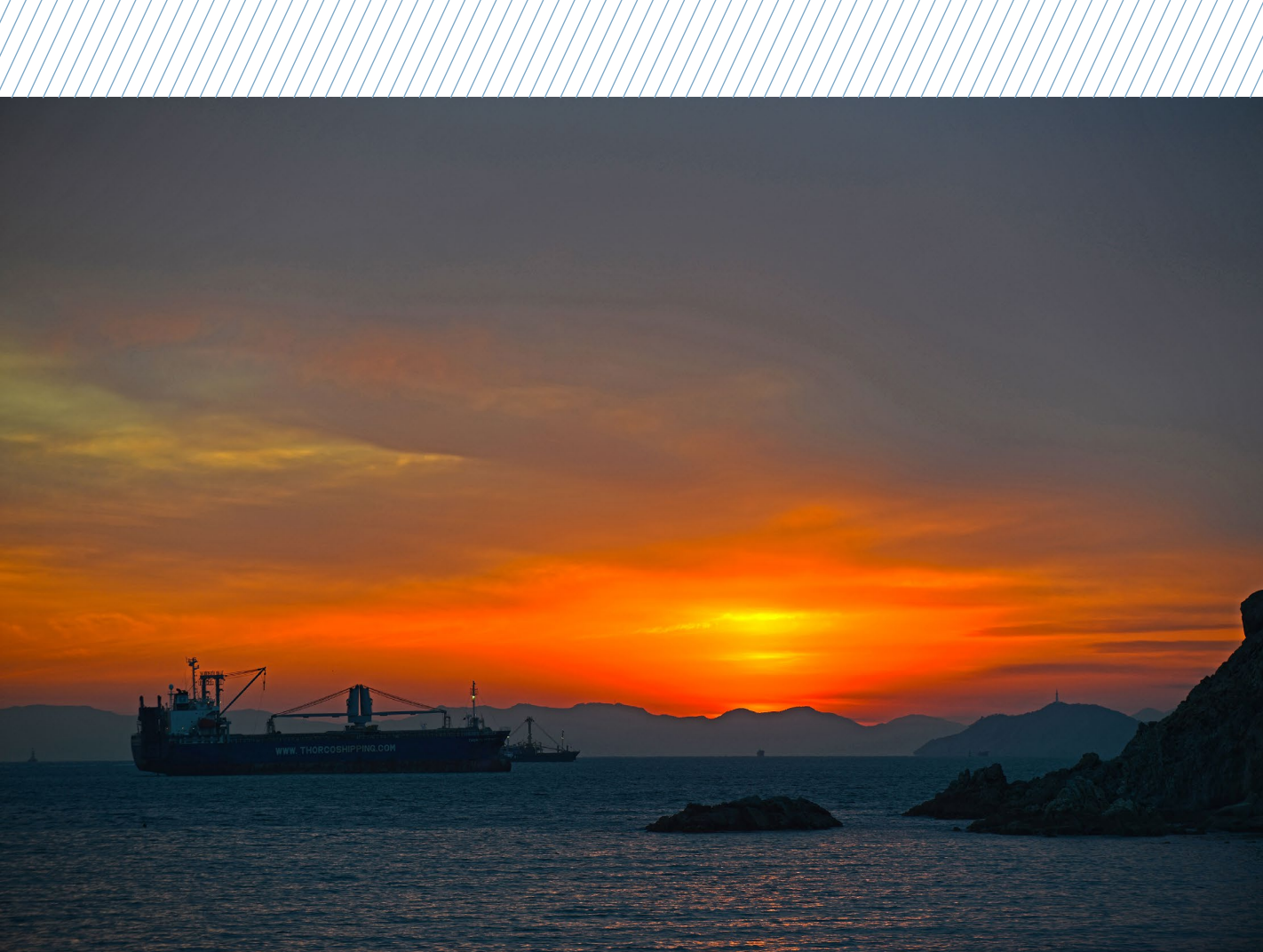
부산까지 와서 곰장어를 맛보지 않
을 수 없다. 곰장어는 짚불구이, 소금
구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먹지만 곰
장어는 역시 은박지 깐 불판에 고추장
소스 듬뿍 넣고 양파·대파와 함께 익혀
먹는 야채볶음이 으뜸. 잘 익은 곰장
어에서 우려난 국물에 비벼 먹는 밥도
별미다. 부산 곰장어는 자갈치시장, 온
천장 곰장어 골목, 기장 곰장어 등이
유명하다.



자갈치시장



삼진어묵



-
- 맛집** **삼진어묵** 어묵 /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99번길 36 / 051-412-5468
 - 동성장어구이** 곰장어 / 부산광역시 서구 자갈치로 12-1 / 051-243-0156
 - 동래할매파전** 동래파전 /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로94번길 43-10 / 051-552-0792
 - 초량밀면** 밀면 /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25 / 051-462-1575
 - 본전돼지국밥** 돼지국밥 /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214번길 3-8 / 051-441-2946

 - 숙박** **코모도호텔부산** 부산광역시 중구 중구로 151 / 051-466-9101
 - 까꼬막 게스트하우스** 부산광역시 동구 망양로596번길 18 / 070-7333-9195
 - 숨 게스트하우스**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226번길 3-7 / 010-6889-1427
 - 동양모텔**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196번길 16-10 / 051-442-1248